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25(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4(日) 11:00부터

문의 : 유통산업팀 엄성용 팀장(6050-1490, 010-5226-1430), 강수정 대리(6050-1515, 010-5045-2915)

1분기 유통업체감지수 횡보세... 인터넷쇼핑·홈쇼핑 호황 전망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15 3Q 96 → '15 4Q 96 → '16 1Q 96
- 인터넷쇼핑(104), 홈쇼핑(104) 호황 ... 백화점(91→95), 대형마트(93→96)으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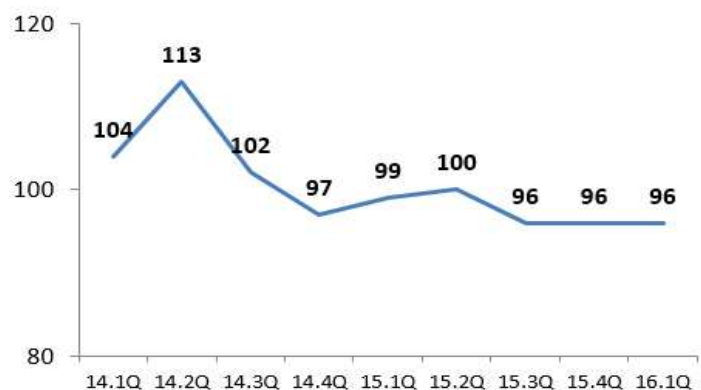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하락국면에서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4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치가 '96'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2분기 100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96'에서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그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대한상의는 “지난해 4분기 K-Sale Day,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소비진작책이 효과를 거두며 반짝 회복세를 나타낸 소비경기가 새해 들어 다소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시적인 경기회복 효과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심리 역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업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종합	101	105	103	98	87	98	105	101	104	113	102	97	99	100	96	96	96
인터넷쇼핑몰	108	114	114	103	105	115	113	105	104	111	112	111	108	106	108	108	104
백화점	96	107	109	102	95	109	113	108	117	122	100	99	101	104	90	91	95
대형마트	103	97	87	87	76	82	98	92	108	112	97	91	96	98	96	93	96
홈쇼핑	115	139	134	138	77	104	104	148	106	126	120	126	118	96	87	119	104
편의점	105	105	112	98	81	93	105	90	86	104	100	90	88	95	96	87	84
슈퍼마켓	91	97	103	96	83	94	97	106	83	101	96	85	88	94	99	90	91

업체별로는 지난 분기에 이어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편의점은 다소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104)은 동절기 특수에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홈쇼핑(104)도 계절 특수에다 빠른 배송 서비스 도입, 온·오프라인 통합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됐다.

대형마트(96)와 백화점(95)는 각각 창고형·체험형 매장, 복합 쇼핑 타운 등 새로운 포맷의 신규점포를 잇따라 출점하고 있지만, 신규 점포에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슈퍼마켓(91)과 편의점(84)은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로 1분기 부진이 예상됐다. 특히 편의점은 전체 시장 매출 규모는 늘고 있지만 점포수 포화로 인한 개별점포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유통기업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1.0%)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30.9%), ‘업체간 경쟁 심화’(11.9%) 등을 차례로 들었다. <‘인력부족’(3.8%), ‘업체내 경쟁심화’ 3.2%, ‘유통관련 규제강화’ 1.3%, ‘기타’(7.9%)>

강호민 대한상의 상무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신규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유통업계는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 유치,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 강화, 실속 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12/1(화)~12/21(월)
- ☐ 조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소매유통업체 944개사
- ☐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